

〈이현경전〉의 후대적 수용과 의미

이 병 직*

차 례

- | | |
|------------------------|----------------------|
| I. 머리말 | III. 〈이현경전〉의 소설사적 의미 |
| II. 〈이현경전〉의 자장과 후대적 수용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이현경전〉이 후대 소설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으며, 소설사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현경전〉의 사건 구조, 인물의 성격과 관계, 여성의식의 특징을 준거로 후대 작품과의 관련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현경전〉을 직간접 수용한 것으로 짐작되는 작품은 여성영웅소설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부장양문록〉과 〈정수정전〉을 들 수 있고, 가문소설로는 〈유이양문록〉이 분명하며, 개화기에 신문에 개작 연재된 작품으로 〈여영웅〉이 있음이 확인된다. 이들 작품은 다른 갈래의 소설과 부단한 상호 작용을 하면서도 서사구조나 인물 형상 등에서 〈이현경전〉과 관련이 밀접하다. 따라서 〈이현경전〉은 18세기부터 개화기에 이르기까지 후대 작품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 부산 금성고등학교 교사

문학 작품은 다른 작품과의 상호 작용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이현경전>의 소설사적 의미를 세 가지 정도 짚어 보았다.

첫째, <이현경전>은 여성영웅소설의 입공담 모형을 완성하였으며, 여기에 신분노출담과 부부대립담 등을 두루 갖춤으로써 후대에 매우 다양하고 독특한 여성영웅소설이라는 하위 유형을 지속적으로 탄생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된다. 둘째, <이현경전>에는 복수가문이 존재하고, 곽혼인에서 비롯된 갈등 및 처첩 갈등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이양문록>과 같은 가문소설에서도 발견되는 요소로 여성영웅소설과 가문소설 간의 갈래교섭을 살펴볼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셋째, <이현경전>은 후대에 필사본, 신문 연재본, 활자본 등과 같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본 또는 개작으로 변모 계승되면서 독자 대중에게 유통되었다. 이 과정에서 남녀 독자 모두를 고려하여 내용이 손질된 이본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신문에 연재되면서 새로운 시대 상황을 반영하기도 하였다. 이 점에서 소설의 대중화와 통속화를 살펴볼 수 있는 적합한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주제어 : 이현경전, 여성영웅소설, 가문소설, 상호 작용, 수용과 영향, 갈래 교섭

I. 머리말

18세기 전반 소설사적 정황의 일단을 보여주는 <여와전>에 이현경의 이름이 거론되고,¹⁾ 늦어도 19세기 작으로 추정되는 거질의 <유이양문록>에 <이현경전>의 작품 내용이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이현경전>은 18세기에 이미 유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이 작품은 궁중에까

1) 지연숙, 『장편소설과 여와전』, 보고사, 2003, 246-262쪽 참조.

지 유전되었고,²⁾ 개화기에 이르러는 개작되어 신문에 연재되기도 하였으며, 이문당본과 회동서관본 등 활자본으로 인쇄되어 유통되었다. 그만큼 이 소설은 후대에도 폭넓게 수용되었으며, 초기 여성영웅소설의 후대적 수용과 변모를 알아보기에 적합한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이 작품은 여성영웅소설 전반의 유형 분류, 형성 및 계통에 관한 연구 등 부분적으로 고찰되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개별 작품의 이본, 구조 분석, 인물 성격, 주제의식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³⁾ 최근에는 이 작품이 여성영웅소설의 초기 작품으로 설정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새롭게 재조명되기에 이르렀다.⁴⁾

개별 작품의 연구 성과는 작품의 해석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의미를 심화시킨 장점이 있으며, 여성영웅소설과 관련된 연구는 <이현경전>의 소설사적 위치를 새롭게 논의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현경전>이 여성영웅소설의 초기 작품이라는 중요성에 비해 아직까지 소설사에 그 의미가 심도있게 자리매김되지 않은 인상을 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현경전>이 후대 소설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밝

2) <이현경전>의 이본인 경북대본 <이학사전>은 궁체로 쓰여진 것으로 보아 그 향유 계층이 궁중 독자층으로 판단된다.

3) 대표적인 성과로 강진옥, 「이현경전(이학사전) 연구-婦道와 자아실현 간의 갈등을 통해 드러난 인간적 삶의 모색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제2집, 한국고소설학회, 1996 ; 전용문, 「<이학사전>의 구조와 인물성격 연구」, 『고소설연구』 제3집, 한국고소설학회, 1997 ; 박은화, 「「이현경전」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1997 등을 들 수 있다.

4) 정병설,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와 <부장양문록>」, 『고전문학연구』 제19집, 한국고전문학회, 2001 ; 류준경, 「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여성영웅소설」, 『고소설연구』 제1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1 ; 전이정, 「여성영웅소설 연구 - 서사 단위와 구성원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박사논문, 2009 ; 정준식, 「<김희경전>의 창작방법과 창작시기」, 『한국민족문화』 31,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8 ; 박양리, 「초기 여성영웅소설로 본 <이현경전>의 성격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54, 한국문학회, 2010.

히는데 목적을 둔다. 단순히 어느 작품에 이현경과 관련되는 이름이나 소재가 언급된다거나 소설의 구성이 유사하다거나 하는 점을 밝히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후대에 이 작품을 수용하면서 소설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즉 영향이나 수용이라는 단순한 동질성이나 차이성을 드러내는 것에서 나아가 여성영웅소설의 사적 맥락을 추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근거로 삼는 것이 한층 의미있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이런 작업은 여성영웅소설의 전개 과정이나 변모를 파악하는 일인 동시에 여성영웅소설과 다른 유형과의 교섭 양상이나 상관관계를 검토하는 것과도 관련된다 할 것이다.

II. <이현경전>의 자장과 후대적 수용

1. <이현경전>과 여성영웅소설

<이현경전>의 후대적 수용을 살펴보기 위한 준거로 서사적 구조, 인물의 성격과 관계, 여성의식의 특징을 중심으로 작품의 성격을 간략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 이 작품의 주요 서사단위는, ① 이현경의 출생과 남장, ② 수학과 과거급제, ③ 왕세충의 유부녀 겁탈 사건 처리, ④ 남경 주왕의 모반과 남만 선우의 정벌, ⑤ 신분 노출을 둘러싼 이현경과 주변인의 갈등, ⑥ 혼사 갈등과 결혼, ⑦ 부부 갈등과 화해, ⑧ 후일담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①~④는 주인공이 영웅적 활약을 펼쳐 그 능력을 극대화하는 입공담에 해당하는데, ‘남장·수학-과거급제-출정입공-지위극대화’라는 서사구조⁵⁾로 요약된다. ⑤~⑧은 결혼하기까지 신분노출 갈등담을 포함

5) 정준식, 「<김희경전>과 <육미당기>의 상관성-남장결연담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48집, 한국문학회, 2008, 52쪽.

하여 결혼 이후 부부대립이라는 부부갈등담에 해당한다. 결국 이 작품은 입공담과 부부갈등담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인물의 능력이나 성격 창조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탁월하게 뛰어난 것으로 설정되어 있고, 남성은 소극적이거나 주저하는 면모가 강하다. 과거 시험, 시문 짓기, 정책 제시, 전쟁터에서의 활약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여성과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한 남성의 선명한 대비를 통해 여성우월의식이 한껏 드러나 있다. 또한 남성인 장연의 급한 성격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사태를 더욱 꼬이게 만든다. 여성우월 남성열등이라는 남녀불균형이 지나치게 조성되어 있는 이런 모습은 초기 여성영웅소설의 한 특징으로 후대의 여성영웅소설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여성의 자의식적인 측면도 부각되어 있다. 어릴 때부터 자원 남장한 이현경은 여공을 권유하는 부친의 뜻과는 달리 성인의 유풍에 따라 문장을 이루고 직언정론으로써 事君事親할 것이라며 부친과 마찰을 빚는다. 유모 또한 혼인을 종용하며 여성으로서 규범을 지킬 것을 권유하지만 이현경은 부녀자의 삶을 거부하고 흥포옥대를 두른 사대부로서의 삶을 지향하며 사군보국할 것을 꿈꾼다. 또한 혼인을 둘러싼 남녀의 역할에서도 남성은 소극적이며, 혼사의 결정권은 여성이 좌우할 정도로 여성에게 편중된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은 서사구조상의 특징, 여성우월 남성열등의 남녀 관계, 여성의 자의식이 고양되어 있는 점 등은 초기 여성영웅소설의 성격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점이 <이현경전>에서 모두 마련된 것은 아니다. 17세기 후반 무렵에 창작된 것⁶⁾으로 알려진 <설계전>에도 이와 유사한 성격이 있다. 즉 ‘수확-과거급제-신원(伸冤)-신분노출-혼인’이라는 서사진행을 보이는 <설계전>에 군담만 추가된다면 여성영웅소설의 독특한 서사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입공담을 갖추게 된다.⁷⁾ 또한 최훈이 유부

6) 최호석, 「<설계전> 연구」, 『고소설연구』 제6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287쪽 참조.

너 정씨의 미모에 혹해 겁탈하려다가 정씨가 달아나 혈서를 쓰고 자결한다는 유부녀 겁탈 모티프 내용은 <이현경전>에서 국구 왕세충이 유안의 처를 겁탈하려고 납치하는 사건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결국 여성영웅소설의 독특한 서사구조와 이를 해결하는 여성의 활약이라는 님은 점을 볼 때 <설계전>은 <이현경전>에 일정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창작 시기가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을 지닌 <부장양문록>은 장수정금과 부계, 장원흥과 부월혜 등 남녀복수주인공의 일대기에 입각하여 여성영웅적인 활약상이 돋보이는 영웅서사와 남녀간의 결연갈등이 부각되어 있는 결연서사가 교직되어 있는 소설이다.⁸⁾ 5권 5책의 <부장양문록>에서 1~3권은 대체로 장소저의 영웅담과 결연 이야기가, 4~5권은 부소저의 혼사장애담에 얽힌 이야기가 중심을 이룬다. 그리고 양가의 자손들이 장성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다른 집안과 혼사를 치른다는 가문소설적 내용이 가미되어 있다. 그렇기에 이 작품은 여성영웅소설, 가문소설, 국문장편소설 등 다양한 갈래적 속성을 지니므로 <이현경전>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현경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목되는 점이 있다.

먼저 여성주인공인 장수정금의 영웅적인 활약상과 결연 갈등이 이현경과 닮았다.

장수정금과 관련된 스토리 라인을 살펴보면, 부계와 정혼, 부친의 유배, 남장·수학, 출정 입궁, 운소저와 女女 결연, 과거 급제, 부친 해배, 신분 노출, 혼사 갈등, 결혼, 흥노의 계략 격퇴, 서용 정벌 인재 추천 등

7) 정준식, 「<김희경전>의 창작방법과 창작시기」, 『한국민족문화』31, 188쪽에서 언급하였고, 박양리, 앞의 논문, 97-103쪽에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8) 이 작품에 대한 연구 성과로는 정병설, 앞의 논문; 김정녀, 「가부장적 가족구조 속의 여성의 존재 방식- <부장양문록>의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28집, 한민족문화학회, 2009; 이병직, 「<부장양문록>의 작품 세계와 소설사적 위상」, 『한국민족문화』 34,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채윤미, 「『부장양문록』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9 등을 들 수 있다.

으로 요약된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는 입공담과 결연담이다. ‘남장·수학-출정 입공-과거 급제-외적 격퇴’라는 입공담은 <이현경전>과 비교하여 그 순서가 뒤바뀌기는 하였지만, 여성이 남장하여 외적을 물리침으로써 국가적인 위기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곧 흉노를 물리치고 명나라를 구한 일, 흉노가 보낸 문서를 해독하여 국가 위기를 해결한 일, 서유이 침입했을 때 아우를 천거하여 국가 위기를 해소한 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장수정금의 신분이 밝혀지고 난 뒤 부친이 부계와 결혼을 촉구할 때 보인 그녀의 반응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수정금은 신분을 밝히고 여성으로서 규방 속에 거처하라는 부친의 명은 따르겠지만, “육년남장의 당당한 공후 분칠하는 녀즈되여 부한님의 슈건 받드는 소님은 춤아 녹 녹하고 갑갑하녀 못하리로소이다”⁹⁾와 같이 결혼만은 한사코 거부한다. 이현경 역시 결혼을 거부하면서 사회적인 자아를 성취하고자 하는 면모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장소저와 부계의 결연 과정에서도 두 작품은 닮아 있다. 영웅적 활약을 벌이는 여성이 과도한 자의식을 드러내면서 남성과의 결연을 쉽사리 허락하지 않는 점, 적극적인 의지 표현의 여성과 망설임과 소심함으로 일관하는 남성을 대비시켜 남녀관계의 역전을 보임으로써 독자들의 흥미를 자아내고 있는 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혼사를 이루려고 몇 차례나 시도하고 안절부절못하는 부계의 모습은 장연의 모습과 흡사하고, 그러한 행위를 여러 차례 거절하는 장수정금의 모습은 이현경과 닮아 있다. 왕실에 의해 혼사가 성립되는 계기, 이후 벌어지는 몇 차례의 갈등, 군담이 짙막하게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점 등도 유사하다.

이와 함께 <부장양문록>에 제시된 장수정금의 인물 형상과 부계와의 관계 역시 <이현경전>과 관련이 깊다 할 것이다. 장수정금은 침선여공

9) <부장양문록> 3권 18장 앞뒷면.(이하 각 작품의 장과 면수는 18ab 등으로 표기한다)

에는 관심이 없고 천문서와 병법을 공부하고 검무를 익히는 등 성 역할에 있어 부친과 마찰을 빚는다. 장수정금에게 요구하는 婦道는 침선방적을 배우고 부계와 결혼하여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의 규범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장수정금은 남자 행세를 하고 기운을 뽐내며, 혼인을 거부하고 여화위남으로 종신하려 함으로써 명교와 충돌한다. 장수정금이 부계와 혼인을 한사코 거부하는 모습은 이현경이 남복을 입고 여성되기를 싫어하는 모습, 결혼하여 부인되기를 거부하는 행위와 닮아 있다.

아울러 여성의 자의식이 강하게 부각되어 있고, 진지한 여성의식이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그 세부 양상은 비록 다르지만 내적인 동기면에서는 유사성이 많아 보인다. 여성의식의 진지성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충돌되는 지점에서 드러나는데, 여주인공 장수정금의 행위에서 가장 잘 부각된다.

물론 이러한 유사점이 <이현경전>과 <부장양문록>의 단선적인 영향 관계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부장양문록>의 경우는 여성영웅소설 뿐 아니라 가문소설에 초점을 맞추어 그 상관관계를 검토할 여지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18세기는 가문소설을 비롯한 우리 고소설이 한창 성행했던 시기이다. 그러므로 한 두 요소의 유사점으로 어느 한 작품이 다른 작품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시각은 매우 단조로우므로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다만 <이현경전>이 <부장양문록>보다 먼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는지 지금으로서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여성영웅소설의 서사구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 작품의 상관성이 긴밀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초기 여성영웅소설은 아니지만 <정수정전>은 <이현경전>과 관련이 많다. 이 작품은 필사본, 목판본, 활자본 등 다양한 형태의 이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독자들에게 폭넓게 수용된 듯하다.¹⁰⁾ 이본 간의 내용

10) 김용봉, 「<정수정전>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1993 및 사진실, 「정수정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인 사건 전개는 다음과 같다.¹¹⁾

① 정흠의 딸 정수정과 장운의 아들 장연의 정혼, ② 진량의 참소로 정흠이 유배가서 죽음, ③ 정수정의 남장·수학, ④ 정수정이 별과에 급제하여 진량을 유배 보냄, ⑤ 복적이 침범하자 정수정은 대도독으로, 장연은 부원수로 출전하여 적을 물리치고, 정수정은 청주후가, 장연은 기주후가 됨, ⑥ 황제가 정수정을 부마로 삼으려하자 정수정이 표를 올려 본적을 밝힘, ⑦ 정수정과 장연의 혼인, ⑧ 장연의 총첩인 영춘이 무례하게 굴자 정수정이 징치하고 청주로 내려감, ⑨ 복적이 재차 침입하자 정수정이 복적을 섬멸하고, 군량미를 늦게 운반한 장연을 징치함, ⑩ 정수정이 회군하면서 진량을 목 베고 청주로 돌아감, ⑪ 시모와 정수정의 화해, ⑫ 부귀영화와 후일담

세부 내용에서는 이 작품이 <이현경전>과 구분되는 독자성을 지니지만, 서사구조와 인물 관계에서는 유사한 면이 많다.

③~⑤는 정수정의 입공담 대목으로 ‘남장·수학-과거급제-출정입공-지위극대화’의 구조를 취한다. 앞의 <이현경전>의 입공담과 동일한 구조이다. ⑥은 정수정이 황실의 부마 간택 때문에 여자라는 본적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⑦은 ①에서 예정된 혼약에 따라 두 사람이 결혼하는 단락이다. 이미 정혼한 사이이지만 일종의 늑혼을 피하기 위한 결혼이라는 점에서 <이현경전>보다는 <부장양문록>과 닮았다. ⑧은 총첩과의 갈등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정수정의 일방적인 징치에 가깝다. 이 점은 이현경이 장연의 총첩 위영을 다스리는 것과 동일하다. 더구나 이 때문에 이현경이 시가를 떠나 본가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며, 정수정이 시집을 떠나 청주로 내려가는 상황과 동일하다. 정수정과 장연의 대립 갈등은 이후 ⑨의 전장에서 계급의 상하 관계로 한바탕 더 진행된다. 그러다가 ⑪에서 시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오자 갈등이 마무리되며

전_이본의 계통과 변모 양상_, 『한국 고전소설과 서사문학(상)』, 집문당, 1998 참조.

11) 텍스트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54장본 <鄭水晶傳>을 대상으로 하였다.

화해를 이룬다.

인물의 관계 역시 유사하다.¹²⁾ <정수정전>에서도 여성우월 남성열등이라는 남녀불균형이 조장되어 있다. 황제 앞에서 시 짓기를 하여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정수정이 장연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른다. 나아가 전장터에 출전한 두 사람의 신분과 활약면에서도 이 점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북방 오랑캐가 침입하자 정수정은 원수의 직함으로, 장연은 부원수로서 출전한다. 전투에서 정수정은 화려한 공을 세우는데 장연은 그다지 활약하는 장면이 없다. 이본에 따라서는 장연이 공을 세울 욕심으로 출전하였다가 적에게 포위되어 위기에 처해 정수정에게 구출받는 신세가 된다는 대목도 있다. 게다가 균율을 어긴 죄목으로 정수정으로부터 군령으로 다스려지기도 한다. 이와 같이 여성이 우월하고 남성이 열등하게 형상화된 것은 <이현경전>과 동일한 양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현경전>에 비하여 남녀불균형의 정도는 그다지 심한 편은 아니다.

<정수정전>은 세부 사건 전개에서 정혼 대목, 간신 모해담과 복수담, 호왕의 재침에 의한 2차 군담 등이 있지만, <이현경전>에는 없다. 그리고 여성의 본색노출을 둘러싸고 지루하리만큼 남녀 인물이 벌이는 갈등담이나 혼인 거부담이 없다는 점 등에서 <이현경전>과 차이가 있다. 하지만 ‘납장·수학·과거급제-출정입공-지위극대화’라는 입공담과 ‘신분노출-결혼-부부대립-화해’라는 부부갈등담을 갖춘 동일 서사구조를 지녔다는 점에서 상호 영향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여성영웅소설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장양문록>이나 <정수정전>이 <이현경전>과 관련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물론 앞에서도 언급하였

12) <이현경전>과 <정수정전>은 공교롭게도 남성 주인공의 이름이 ‘장연’으로 동일하다. 더구나 남녀 주인공이 제수받은 벼슬 명칭 또한 ‘청주후’와 ‘기주후’로 똑같다. 우연 치곤 예사롭지 않다.

듯이 이 작품 말고도 두 소설에 영향을 끼친 작품이 있음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부장양문록>은 가문소설과 친연성이 강하고, <정수정전>은 <홍계월전>이나 영웅소설의 서사구조나 특징에서 그 관련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가문소설에서의 수용

<劉李兩門錄>은 題名이 시사하듯 劉門과 李門이 중심 가문이며, 여기에 張門이 두 가문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문소설이다. 가문소설이니만큼 기본적으로 <이현경전>과는 서사구조가 다르다.¹³⁾ 그런데 37권부터 작품의 끝인 77권까지에 장연과 이현경의 후손과 관련된 사건이 펼쳐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37권~46권은 장연과 이현경의 2세인 장월주가 劉門의 3세인 유세창과 결연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갈등이고, 46권~69권은 3세인 장계성이 이몽해·범부인·양부인 등 3부인과 3명의 총첩과 결연하고 갈등하는 내용이며, 70권~77권은 역시 3세인 장범영이 李門의 이창희와의 결연 갈등을 다룬 이야기이다. 유문과 이문에는 1대, 2대, 3대의 세대별 이야기가 고루 다루어져 있지만, 장문에는 1대 장연의 이야기가 <이현경전>에서 이미 충분히 다루어졌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이 빠져 있고, 2대와 3대의 이야기만 언급되어 있다.

<유이양문록>이 <이현경전>과 관련 있음은 이미 선행 연구에서 한 차례 언급되었고,¹⁴⁾ 그 이후 인물 창조를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이현경전>을 수용하였으며, 그 의의는 傳이 錄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준다¹⁵⁾고 하여 논의가 보다 심화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기존 논의를 수

13) 작품의 서사 구조 분석에 대해서는 조광국, 「<유이양문록>의 작품 세계」, 『고소설연구』 제26집, 한국고소설학회, 2008 참조.

14) 박숙례, 「<유이양문록>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07, 56-57쪽; 임치균, 「<유이양문록> 해제」, 『뉴니양문록』 일,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13-15쪽 참조.

15) 차충환, 「『유이양문록』의 구성적 성격 연구」, 『어문연구』 139, 한국어문교육연구

용하되, 여성영웅소설과 가문소설과의 관련에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두 작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에서 관련 있는지 살펴본다.

“부인 니시는 시속 범니흔 녀지 아니라 ①일즉 조상부모호고 녹친이
희소호며 일테 연경이 어리니 즈기 기 시팔 세라 규각의 감초인 어린
녀지 되여는 강포의 욕도 두렵고 냉빈흔 가스를 다스릴 길히 업는지라
②형세 절박호고 신세 위급호여 부득이 여티를 감초고 남북으로 형세호
니 쏘흔 작인이 비상호야 의연이 남즈의 골격이 잇고 부인의 으리싼은
티되 업스니 세상이 알 니 업서 방심호여 글을 힘써 ③장원급테호여 한
원고스로 도명빅뇨로 호여곰 무릅홀 뜰게 호며 남진덕국호여 던필승공
필취호여 성명이 회외의 진동호니 명만턴하의 빅뇌 괴석양복이오 상이
네경둥터러니 ④당상세 덜노 더브러 동창의 벗이 되여 교명이 지극호되
니싱이 미양 씩씩 닝담호여 벗 스괴미 남즈의 계습을 다호나 갖마이 친
밀키를 아니호니 즈연 음양의 니를 소이다 못호고 하늘이 호흔 썩를 미
양 빌니지 아냐 당싱의 영호호던 슈단의 발각호 비 되니 ⑤허다호 스텍
이 본전의 잇는지라 ⑥황명으로 니시를 마즈 상원의 두니 석석호 품격
이 장중영풍이오 색허난 얼굴이 추슈부용이 향기를 토호며 일눈은섬이
광칙를 흘넘ㄹ트니 당공이 둥디 하히갓트며 평싱 탐외의 언식호는 뉴를
두지 아니 호고 공경화락호야 ⑦녹즈니녀를 싱호니 기기히 옥슈지란 갓
트여 부풍모즈호여 옥명선인갓트며 ⑧두 녀이 부모의 고은 풍용은 전혀
습호여 절세흔 직용이 당세의 무쌍홀 분 아니라 당녀 월쥬 쇼저는 흡연
이 모친 여풍이 이셔 씩씩 상활호고 엄정슈이호여 규중녀즈의 품격이
아니라”¹⁶⁾

밑줄 친 ①~⑦은 모두 <이현경전>과 직접 관련있는 대목이다. ①은 이현경이 10세 때 부모가 구몰한 사실, 이때 어린 연경의 나이가 3세 전 후였으며, ②와 ④는 현경이 남자에 뜻을 두어 3세부터 글을 읽어 학문에 통달하고 자원하여 남북을 개척하고 성장하였으며, 장연과 교유가 남달랐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③은 이현경의 입신공명과 관련된 내용이다.

회, 2008, 115-120쪽.

16) <뉴니낭문록> 권37,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9, 6권 32-33쪽.

과거에 장원급제한 사실, 감찰원 도어사가 되어 국구 왕세충의 횡포를 바로잡은 일, 주왕의 반란과 남만을 평정하고 그 공으로 청주후에 봉해 짐으로써 명망이 사해에 떨친 사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⑥은 이현경이 본색이 드러나 결국 황제의 주선으로 장연과 결혼한 사실과 관련되며, ⑦은 이현경이 낳은 자녀의 숫자이다.¹⁷⁾ 이러한 모든 내용이 본전에 실려 있다는 것이 ⑤인데 그 본전이라는 것이 바로 <이현경전>인 것이다. ⑧은 <유이양문록>에서 張門의 구성원인 장월주에 관한 언급인데, 장월주는 바로 이현경의 딸로서 그녀의 씩씩하고 상활한 모습이 이현경을 닮아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로 밝혀진 <이현경전>의 이본에는 장연과 이현경의 후손이 펼치는 이야기가 따로 있음을 언급해 두고 있다.

“냥가의셔 무흠 환낙으로 디니고 ①니후의 즈녀의 남가녀혼하여 성
즈신손이 계계승승하고 괴기묘묘흔 설화는 후록의 기록하였는고로 이
편의는 아니올니고 니후의 님신양명의 출장입상하여 전필승공필필의 명
두죽빅하고 화영인간 핑적이 괴이흔고로 뒤강기록하노라 계묘팔월김필
셔”¹⁸⁾

인용문의 경북대본 <이학사전>에는 이현경과 장연의 한 세대에서 일어난 이야기만 다를 뿐 그 후손들에 대한 상세한 언급이 없다. 그 이유를 밀줄 친 ①과 같이 후록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물론 후록이라는 작품이 <유이양문록>을 단정짓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작품 중에서 이현경과 장연의 후손이 활약하는 내용이 <유이양문록>에 있기 때문에 경북대본에서 언급한 후록이 <유이양문록>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¹⁹⁾

17) 장연과 이현경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숫자는 이본마다 다르다. 사재동본과 경북대본에서는 이현경이 6자 1녀를, 고씨가 3자 2녀를 낳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회동서관 활자본에서는 이현경이 1자를, 공씨가 1자 3녀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18) 경북대본 <이학사전> 2권 43ab.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이현경전>이 가문소설과의 상관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이현경전>이 18세기 이후 읽혀졌다면 <유이양문록>에서 이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였고, <유이양문록>을 읽은 독자가 다시 경북대본 <이학사전>을 필사하면서 원래 <이현경전> 말미에 있었던 후손들 이야기를 모두 생략하면서 이에 관한 이야기는 <유이양문록>으로 미루고 있다. 그래서 경북대본 이본에서는 이현경과 장연 당대의 이야기만 다루었고, 이를 수용한 <유이양문록>은 장연의 1대를 비롯하여 2대, 3대가 모두 나타나는 가문소설이다. 이처럼 <이현경전>을 통해서 여성영웅소설이 가문소설과 상호 교섭할 수 있는 여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유이양문록>에서 張門의 주요 구성원들의 인물 성격 창조는 <이현경전>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특징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유이양문록>에 묘사된 이현경의 모습은 전대 소설 <이현경전>의 그것과 동일하다.

(가) 니부인이 성장을 정제하고 늙은 위좌하여 은근이 말슴을 여러 정의를 두터이 미즈미 엄정흔 네모와 뽕뽕흔 티도와 쇠락흔 얼골이 녀중군왕이라 언에 유희흔 중 엄정흔며 용모를 슈렴하고 간간이 명모를 흘녀 보고 거동이 직하즈로 송연황공케 흐느니라.²⁰⁾

(나) 니부인의 명감은 도티경을 다랏느니라 신부의 길상이 아니물 보고 불열하야 묵묵이러라²¹⁾

(가)에서 ‘엄정흔 네모와 뽕뽕흔 티도와 쇠락흔 얼골이 녀중군왕’이라

19)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유이양문록>이 77권 77책이라는 거질의 장편소설이라는 점, 이 작품의 주된 독자는 일반 독자층이기보다는 궁중과 관련된 독자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더욱이 경북대본이 궁체로 필사된 점을 고려한다면 두 작품 모두 궁중과 관련된 상관성이 더욱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20) <뉴니양문록> 권37, 12b~13a.

21) <뉴니양문록> 권48, 5b

고 평가하였듯이, <이현경전>에 등장하는 씩씩하고 활달한 이현경의 기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표현이다. (나)에서는 조마경(照魔鏡) 같은 明鑑을 지닌 이현경의 능력을 말함으로써 새로 들어오는 신부가 앞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키리라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지인지감을 갖춘 이러한 능력은 이전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재능을 그대로 이어받아 표현한 것이라 판단된다.

<유이양문록>에서 장연의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럼에도 그의 급한 성격은 그대로 이어져 있다. <이현경전>에서 장연은 노복들의 무례한 태도에 화가 나서 칼을 뽑은 채 내실로 들어가 자기를 본 체도 않고 거문고만 타고 있는 현경을 향해 꾸짖는 대목이 있다. 이러한 급한 성격은 <유이양문록>에서 “당휘 본디 성이 급흔지라 문의 들면 문니를 기다리지 아니코 쟈쳐 드러가니 초공이 상상의 언와흐엿다가 마지 못하여 이러 마즈”²²⁾라는 것으로 그대로 제시되어 있다.

장월주와 장빙염의 인물 형상 역시 이현경과 관련이 깊다. 부풍모습이라는 말처럼 장월주는 張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모친인 이현경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장월주는 모친을 닮아 씩씩상활하여 남편인 유세창과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못하다. 유세창이 운빙이라는 여자에게 관심을 두고 장월주를 멀리하자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와 남편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의도로 절부당에 거처한다. 이현경이 위영 때문에 남편의 집을 떠나 본가로 되돌아온 상황과 맥을 같이 한다.

장빙염 역시 조모 청주후의 영향으로 장부의 기질이 있어 남편인 창희가 좋아하지 않는다.

당쇼저는 십스세라 (중략) 식식 엄중흐미 그 조모 청취후를 달맛는디
라 웃고 말슴흐면 출일이 혜풍을 브쳐닌는 듯 잠간 미온흐를 품으면 추
턴상노를 능만흐고 잠간 노기를 동흐면 동턴한상 ㄹ흐니 그 조모 청취

22) <뉴니양문록> 권47, 23a

휘 이러흐므로 연약흐고 아리싸온 티되 업서 소턴을 압두절제홈과 당후
 툄 괴롱흐는 비라²³⁾

인용문은 장소저가 조모인 청주후 이현경을 닮았으며, 연약하고 아리
 따운 태도가 없고, 남편을 누르고 절제하는 성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장소저를 창희는 싫어한다. 창희는 창기 앞에서 장소저에게 모욕적
 인 행동을 일삼으며, 심지어 화로를 장씨에게 씌우기도 하지만 장씨는
 미동도 않는다. 게다가 창희는 장소저를 강제로 겁탈하려다가 장씨의 칼
 에 손을 다치기도 한다. 장빙엄·창희 부부의 대립과 갈등은 과거 이현
 경·장연 부부의 대립과 갈등을 재연하고 확대시킨 모습과 유사하다. 장
 빙엄의 강렬한 장부 기질의 인물 됴됨이 이현경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은 <이현경전>이 후대에 그만큼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유이양문록>은 가문소설이기 때문에 기본 서사구조가 <이현경전>
 과는 많이 다르다. 하지만 張門의 주요 인물이 <이현경전>에 등장하는
 인물의 특징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창조되었으며, 그 성격 또한 닮았다.
 그리고 여성영웅소설과 가문소설이 상호 교섭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3. 개화기 시대의 수용과 개작

<女英雄>은 白雲山人 作으로 1906년 4월 5일부터 8월 29일까지 7회
 에 걸쳐 대한일보에 연재된 소설이다.²⁴⁾

23) <뉴니양문록> 권70, 18b~19a

24) 이 작품에 대한 서지 정보와 선행 연구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정환국, 『애국계
 몽기 한문소설의 성격 규명을 위한 시론-『대한일보』 연재소설을 중심으로』, 『한
 국한문학연구』 제21집, 한국한문학회, 1998 ; 조상우, 『애국계몽기 한문산문의
 연구』 도서출판 다운샘, 2002 ; 조용호, 『개화기 국한문소설 <여영웅> 연구』, 『고
 소설연구』 제16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

<이현경전>과 비교하기 위해 <여영웅>의 주요 사건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²⁵⁾

① 이형경의 출생, 남장, 부모의 죽음(1~2차 연재분),²⁶⁾ ② 과거 급제와 교유(3~5), ③ 왕세충의 전횡 해결(6), ④ 남경 주왕의 반란 정벌(9~14), ⑤ 남만의 침범 평정(15~26), ⑥ 신분 노출 갈등(27~35), ⑦ 무산운의 황실 외척 갈등 해결(36~38), ⑧ 신분 노출 갈등과 혼사 갈등(39~53), ⑨ 서번의 침입과 격퇴(54~61), ⑩ 삼진 총독의 반란과 제압(62~66), ⑪ 이형경과 장소의 혼사 갈등(67~83), ⑫ 살마이도의 개화(84~86), ⑬ 장소의 상서도국 정벌과 패배(87~95), ⑭ 민왕의 반란과 제압(96~101), ⑮ 이형경의 혼사 지연과 장소의 천정 인연(102~116)

먼저 서사구조의 동질성과 차이를 간략히 비교해 본다.²⁷⁾ ①~⑧까지는 <이현경전>의 서사 진행과 유사하게 전개된다. 이형경이 어린 시절 남장하여 과거에 급제한 뒤 왕세충의 전횡을 해결하고, 주왕의 반란을 평정하며, 남만을 정벌한 공으로 공후 작록을 받으며, 신분 노출 갈등과 혼사 갈등을 겪는다는 내용은 <이현경전>의 전반부 서사를 거의 수용하였다. ‘남장·수학-과거급제-출정입공-신분노출-혼사갈등’으로 요약되는 이 내용은 <이현경전>의 핵심 사건인데, <여영웅>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된다. 다만 ④와 ⑤의 군담의 내용면에서 <여영웅>이 보다 상세하고 역동적으로 진행되며 등장 인물 또한 다양한 것이 차이점이다. 그리고 ⑦은 <여영웅>에만 등장하는 내용이다.

25) <여영웅> 관련 자료를 제공해주신 동국대 정환국 교수와 목포대 조용호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현재 국내에 있는 이 작품은 미완인 상태이다. 동경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 연구과 부속 근대일본법정사료센터 명치신문 잡지문고에 1907년 8월 27일자 대한일보가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대한일보는 한동안 계속 발행된 듯하다. 다만, 이 날짜의 신문에 <여영웅>이 계속 연재되었는지는 확인 못했다.

26) ()안의 숫자는 대한일보에 연재된 차례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

27) 조용호, 앞의 논문, 320-332쪽 참조.

⑨~⑮는 <이현경전>에 없는 새롭게 개작된 부분으로 군담이 특히 확대되어 있다. <이현경전>에는 군담이 두 차례 있는 것에 비해, 이 작품에는 6차례 진행된다. 이때마다 <여영웅>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이형경 뿐 아니라 다수의 여성영웅이 등장하여 그 능력을 발휘한다.²⁸⁾ 주된 활약을 벌이는 인물이 대체로 여성이라는 점에서 당시 주변부에 속해 있던 여성을 부각시킨 효과가 있다. 봉건 사회에서 능력이나 재능을 갖추고 있더라도 사회 여건상 그 존재가치가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여성의 능력을 시대가 변한 20세기 초에 뚜렷하게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 점이 바로 <여영웅>이라는 제목과도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 <여영웅>이라는 제목은 주제를 드러내거나 작품의 내용을 집약할 뿐만 아니라 <이현경전>과는 차별을 두기 위한 일종의 전략인 셈이다.

⑫와 ⑮에서 펼쳐지는 개화와 독립에 관한 담론은 새롭게 창조된 내용이다.

제7회의 84차 연재분(1906.7.19)은 개화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고, 108차 연재분(1906.8.16)에서는 독립과 관련된 내용이 소개된다. 84차 연재분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교육이다. 교육은 국가의 문명개화를 이끄는 핵심적인 힘이다. 살마이도처럼 약하고 우매한 나라가 강하고 부유하게 되고, 어리석은 백성이 현명해져서 외국과 동등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28) 서사단락 ④에서 죽은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출전하여 용맹을 과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알아주는 진정한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 기꺼이 바친 호방춘, ⑤에서 역시 죽은 남편의 복수를 위해 출전하여 용맹, 계책, 전술에서 이형경을 압도한 석호자, ⑨에서 서번이 침범하여 이형경 일행이 고난에 직면하였을 때 남장한 여성영웅이 등장하여 분위기를 반전시켜 커다란 공훈을 세운 마작 등은 모두 전쟁터의 여영웅들이다. 이밖에도 황실의 외척 갈등에서 자객의 침입을 격퇴하고 황실의 어려움을 평정한 해결자로서의 면모를 보인 ⑦의 무산운을 비롯하여, 동정월과 무산운이 벌인 계교 때문에 곤궁에 빠진 이형경을 구해주는 여자 선관으로 영웅적인 활약을 한 구고성, ⑭에서 민왕이 반란을 일으켜 황실에서 정벌을 나섰다가 황제 및 장소가 커다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구출해 준 백경도인 등은 천상계의 영웅들이라 할 수 있다.

새 학문을 배워 개화한 자주독립국 백성과 같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논지를 펼친다. 나아가 108차 연재분(1906.8.16)에서는 살마이도가 독립을 추진하고 열강과 조약을 체결하여 통상조약을 맺는 내용이 서술된다. 상서도의 주을나가 영국의 국무경이라는 인물과 친분을 맺고, 그를 통해 만국회의소에서 상서도의 독립을 공인받도록 청한다. 만국회의소에서 독립을 공인받은 상서도에 영국 정부가 전권공사를 파견하고 공관을 건축하며, 이후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6개국이 차례로 조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파견하여 통상조약을 맺는다. 도왕인 이상서는 상서도를 아란국으로 개명한다는 내용이다.

개화와 독립은 이 작품이 연재될 당시의 시대적 급선무라 이를 만하다. 이 같은 논지는 당대 대한제국이 당면했던 문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당시 신문매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문제이기도 하다.²⁹⁾ 이와 같이 <여영웅>은 <이현경전>을 수용하였으나 소설 후반부를 완전히 개작함으로써 소설의 내용을 완전히 변개시키고 있다.

한편, 주요 등장인물의 성격과 관계는 <이현경전>을 이어받은 것이다.

이형경의 능력은 장소에 비해 모든 점에서 뛰어난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과거 시험에서의 장원, 시문 짓기에서의 우월한 능력, 군담에서의 전술과 전략에서 장소를 압도하고 있다. 그에 비해 장소는 무능하고 무모하리만큼 열등하게 형상되어 있다.³⁰⁾ 이와 같이 뛰어난 여성과 열등한 남성의 선명한 대비는 전대 소설 <이현경전>의 수용이라 할 것이다. 혼인을 둘러싼 남녀의 역할에서도 동일하다. 장소가 이형경과 혼인해야겠다는 열망을 아무리 강하게 품어보지만, 이형경이 허락하지 않는 한 이 혼사는 작품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연되고 있다. 그만큼 혼사의 결정

29) 정선태, 『『독립신문』의 ‘교육입국’론과 ‘국민’ 생산 기획』, 『한국 근대문학의 수렴과 발산』 소명출판, 2008, 34-41쪽 참조.

30) 작품 곳곳에 이런 면모가 노출되어 있지만 장소가 살마이도를 정벌하러 가는 대목에 가장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권을 이형경이 좌우할 정도로 여성에게 편중된 모습이다.

여성의 자의식적인 측면도 유사하다. 이형경이 남장하려는 의지, 세속 여자의 일을 거부하고 국가를 위해 일하겠다는 의지 등 소설의 많은 곳에서 이형경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

평생 뜻한 바를 펼침은 다만 事君以忠하고 事親以孝함이요, 세상에 공과 이름을 세워 역사에 전하는 것이 신의 큰 바람입니다. 그런데 폐하게서 강제로 신의 뜻을 빼앗으려 하시므로 표를 올려 벼슬을 사직하고 산림 속에서 목숨을 마치기로 이미 신의 뜻을 정하였사오니 폐하게서 신을 부월의 아래 죽이려 하시더라도 신의 뜻은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다.³¹⁾

인용문의 ‘事君以忠하고 事親以孝’함은 당대에 있어서 규방 속의 여성의 일이라기보다는 사회에서 활약하는 남성의 일에 가깝다. 더구나 임금이 자신의 뜻을 강제로 빼앗으려한다면 벼슬을 버리고 산림 속에 들어가겠다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세부 사건 전개에서 <이현경전>과 <여영웅>은 많은 차이가 있다. 예전부터 전해 오는 소설 내용으로는 개화된 신문물이나 새로운 지식을 받은 독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변모를 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여영웅>은 여성영웅소설의 기본 구조를 충실히 이어받고 있으며, 남녀 인물의 성격이나 관계에서는 전대 소설 <이현경전>의 특징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개화기 상황에 맞게끔 변화를 시도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1) 第六回(續) 53차 연재분(1906. 6. 9), 伸之平生所志는 但事君以忠하고 事親以孝호 立功建名於世호야 垂於竹帛이 臣之大願이어늘 陛下 | 强欲奪臣之志호시기로 上表辭職호야 終身於山林之下로 已決臣志호니 陛下 | 垂斧鉞之誅라도 臣志는 不可回也니이다.

Ⅲ. <이현경전>의 소설사적 의미

문학 작품은 끊임없이 상호 소통 작용한다. 소설사에서 서로 다른 작품들끼리 영향, 수용, 교섭 등의 상호 작용은 동시적이고 지속적이며 복합적이어서 어느 한 작품이 다른 작품의 원천으로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명확하게 분리해내기는 사실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작품 활동이 영향, 수용, 교섭 등과 같은 점으로 이루어졌다는 현상 자체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현경전>의 소설사적 의미를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이현경전>은 여성영웅소설의 서사모형을 완성 수립하였으며, 다양한 서사단위가 결합함으로써 후대 여성영웅소설의 분화 발전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남장·수학-과거급제-출정입공-지위극대화’의 입공담과 ‘신분노출-결혼-부부대립-화해’의 부부갈등담이 결합된 이 서사모형은 여성영웅소설의 독특한 서사구조라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이런 서사모형은 <설계전>에서 이루어진 여성영웅소설로서의 불완전한 서사구조를 이어받아 <이현경전>에 이르러 독특한 서사모형을 완성함으로써 후대 여성영웅소설의 전범이 되었을 것이다.³²⁾

여성영웅소설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남장·수학-과거급제-출정입공-지위극대화’라는 입공담은 내적으로 유기적인 긴밀성을 지니므로 그 사이에 다른 사건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 즉 서사단위 자체로써 내적인 공고성을 긴밀히 유지면서도 여성영웅소설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면서도 임의적인 선택이 가능한 결연담, 신분노출 갈등담, 부부대립담 등이 입공담의 전후에 배치되고 애정, 가정, 가문, 군담소설 등과 같은 소설의 하위 갈래와 다양한 교섭을 이루면서 단편 여성영웅소설과 장편 여성영웅소설로 분화되어 나갔다고

32) 박양리, 앞의 논문, 97-100쪽 참조.

집작된다. 단편과 장편은 다같이 입공담을 기본으로 갖추면서 단편은 주로 결연담, 신분노출담, 부부대립담, 군담 등과 같은 서사단위를 선택 배치하여 서사를 결구하였다면, 장편은 단편의 서사단위를 반복하여 활용하되 애정소설이나 가문소설 등과 같은 소설의 하위 갈래를 적극 이용하면서 분량을 증대시키고 서사의 편폭을 확대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18세기에 유통되거나 창작된 여성영웅소설의 경우 일률적인 판단은 곤란하지만 결연담의 유무에 따라 남녀 주인공간의 대립과 조화가 각각 달리 나타난다. 작품 초반에 결연담이 없는 <이현경전>과 같은 경우는 후반부에 부부대립담이 있으며, 이때 두 결연 당사자는 부부대립 및 갈등을 일으키면서 사건이 전개된다. 이 경우 여성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이 보다 강조되고 중시되며,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여성우월 남성열등이라는 여성우월의식이 한껏 두드러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달리 서두에 결연담이 있는 경우는 후반부에 부부대립담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매우 약화되며, 남녀 주인공은 애정과 조화를 바탕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이 경우 여성의 영웅적인 활약이 돋보이지만, 남녀 관계에 있어서 여성우월 의식이나 영웅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애정과 조화를 바탕으로 내용이 전개된다는 특징이 있다. 전자는 <이현경전>, <홍계월전> 등이 대표적이며, 후자는 <김희경전>, <하진양문록>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결국 여성영웅소설은 입공담을 필수 단위 요소로 갖추면서 입공담의 앞뒤에 결연담, 신분노출담, 부부대립담 등과 같은 이야기를 보태거나 생략하면서 19세기 이후 다양한 변주를 일으키며 발전해갔다고 짐작된다. 즉 ‘남장·수학·과거급제·출정입공·지위극대화’라는 입공담을 갖춘 내적인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되 결연담, 신분노출담, 부부대립담 등과 같은 다양한 갈등의 형태들이 모여 외적 다양성을 추구해 간 것이다.

둘째, 여성영웅소설과 가문소설의 교섭 및 경쟁을 살펴볼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늦어도 18세기에는 읽혔을 <이현경전>은 <부장양문록>이나 <유이

양문록>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19세기에는 다수의 여성영웅소설에 영향을 끼치다가 20세기에 <여영웅>과 같은 작품으로 개작되기에 이른다. <이현경전>은 여성영웅소설이고, <유이양문록>은 가문소설이며, <부장양문록>은 두 유형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아우르고 있다. 결국 <이현경전>으로 추측해 볼 때 가문소설과 여성영웅소설은 서로 교섭하거나 경쟁하면서 당시 독자들에게 향유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므로 두 소설 간의 갈래교섭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가문소설과 갈래교섭이 가능했던 것은 <이현경전> 작품 자체의 성격에서 먼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 작품에는 이현경과 장연의 복수가문이 등장하며, ‘이현경-장연’, ‘이연경-장소저’ 간의 곁혼인이 이루어진다. 가문소설에는 가문간의 혼사 갈등 및 곁혼인에서 비롯되는 여러 갈등 양상이 복잡하게 결구되어 있다.³³⁾ <이현경전>에는 단순하지만 이러한 점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문소설과 교섭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춘 셈이다. 예컨대, 이현경과 장연의 혼사 갈등 및 부부대립이 일어나고, 이들 부부대립의 와중에 곁혼인을 이룬 이현경의 아우 이연경이 장연의 여동생과 한때 부부 갈등을 조성한다. 이 점은 가문소설에서 흔히 발견되는 곁혼인에서 빚어지는 여러 갈등 양상과 유사하게 전개된다. <부장양문록>이나 <유이양문록>에서도 가문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으며, 곁혼인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사건을 마련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이현경전>에는 장연의 총첩인 위영과 이현경이 극심한 대립을 일으키는 바와 같이 여성영웅소설에서는 보기 드문 처첩갈등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게다가 장연이 둘째 부인 공씨를 맞아들이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문이 등장하고 여기서 파생되는 부부갈등이나 조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여성영웅소설이 가문소설에서 흔히 나타나는 처첩갈등 내지 부부갈등의 모티프를 제공받았을 개연성이

33) 장효현, 「국문장편소설의 형성과 가문소설의 발전」, 『한국가문소설연구논총』Ⅲ, 경인문화사, 1999 및 송성욱, 『한국 대하소설의 미학』, 월인, 2002, 37-64쪽 참조.

있으며, 이를 수용한 <이현경전>이 여성영웅소설이나 가문소설에 다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현경전>이 창작되고 향유될 무렵인 18세기는 가문소설이 이미 성행했던 시기이다. 따라서 <이현경전>은 가문소설에 영향을 받았거나, 혹은 후대 <유이양문록>과 같은 가문소설에 다시 영향을 끼침으로써 여성영웅소설이 가문소설과 교섭하거나 경쟁할 수 있었던 가능성은 충분한 셈이다. 이러한 것은 결국 가문소설이나 여성영웅소설의 주된 향유층이 여성 독자라는 점과 축적된 독서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이현경전>은 궁체의 필사본이 있는 것으로 보아 궁중에까지 유전되었고, 개화기에는 <여영웅>이라는 작품으로 신문에 개작 연재되기도 하였으며, 이문당본·회동서관본 등 활자본으로 인쇄되어 유통되었던 것으로 볼 때 후대에 폭넓은 독자층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후대적 변모와 수용 상황으로 미루어 판단컨대 우리는 고소설 대중화의 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초기 여성영웅소설로서의 <이현경전>은 ‘남장·수학-과거급제-출정입공-지위극대화’의 입공서사와 부부갈등담이 온전히 구사되어 있고, 여성우월 남성열등이라는 남녀불균형이 지나치게 조장되어 있으며, 이현경의 남장 노출을 둘러싼 공방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결혼 이후 빛어지는 갈등 또한 장황하게 펼쳐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소설 구성은 남성보다는 여성 독자층의 성향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후대 이본이나 활자본에서는 이 점을 기본 골격으로 유지하면서도, 변모의 조짐이 감지된다.³⁴⁾ 경북대본 <이학사전>이나 후대 활자본에는 여성우월 남성열등이 기본적으로 유지되지만, 남성의 체통이 강조되거나 부각되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 예컨대, 이현경의 시가행을 둘러싸고 벌이는 갈등에서 기존 필사본에는 이현경의 도도하고 강한 면모가 부각되어

34) 이병직, 「<이현경전>의 이본 연구」, 『한국문학논총』 53, 한국문학회, 2009, 186-191쪽.

있고, 장면이 계하에 복지하여 사죄하면서 줄부라고 표현하는 대목이 있다. 하지만 후대에 필사된 것으로 보이는 경북대본에는 이 대목이 생략되었고, 도리어 장면이 이현경의 무도함을 꾸짖는 대목이 보인다. 이는 남성 인물의 자존심이나 가부장적 사고가 상대적으로 강조되어 있는 모습이다. 활자본에는 장면이나 인물의 세부 묘사가 약간 축소되는 경향이 있고, 남녀간의 갈등이 필사본에 비해 완화되어 있으며, 남성을 배려하는 측면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여성 독자층을 염두에 두면서도 남성 독자층을 의식한 후대적 변모라 생각되며, 이것이 결국 남녀 모두를 고려한 독서 대중화의 요인이 아닌가 하고 판단된다.

한편, 개화기에는 <이현경전>이 <여영웅>으로 신문에 개작 연재되면서 통속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신문이라는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또다른 방안을 마련하였다.³⁵⁾ 곧 흥미 위주의 군담과 다양한 종류의 남녀 결연이 확대되고 도술을 비롯한 환상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됨으로써 통속적인 흥미 요소는 증대되었지만 여성의 자의식이라는 문제 의식은 희석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반면에 당대에 요구되는 개화, 교육, 독립과 같은 시대의식을 반영함으로써 신문명이나 신교육을 접한 독자, 혹은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독자층의 욕구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예컨대, 서구의 개명한 국가의 제도, 산업, 교육 등등을 살피고 본국에 귀국하여 도민을 교육하고 산업을 일으킨다든지, 陸·海軍을 기르고 우수한 인재를 외국에 유학시켜 개명한 섬을 만든다는 내용은 이전에 볼 수 없는 완전한 새로운 요소로써 독자층에게 신선하게 부각되는 요소였을 것이다.

35) 물론 그 당시 신문이라는 인쇄매체가 오늘날처럼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친일 성향의 대한일보가 얼마나 많은 발행부수를 가졌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한문현토본이라는 문자체계의 한계를 갖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다만 고소설이 신문이라는 매체를 활용하면서 새롭게 등장하였다는 사실은 대중성을 논하는 데 유의미한 작업일 것이다.

IV. 맺음말

이 글은 <이현경전>이 후대 소설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으며, 소설사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이현경전>의 후대적 수용을 살펴보기 위한 준거로써 사건 구조, 인물의 성격과 관계, 여성의식의 특징을 중심으로 작품의 성격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현경전>의 핵심 서사구조는 ‘남장·수학-과거급제-출정입공-지위극대화’라는 입공담과 ‘신분노출-결혼-부부대립-화해’라는 부부갈등담으로 요약된다. 인물관계는 여성우월 남성열등이라는 남녀불균형이 지나치게 조장되어 있으며, 여성의 자의식이 고양되어 있는 점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준거로 파악하여 볼 때 <이현경전>을 직간접 수용한 것으로 짐작되는 작품은 여성영웅소설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부장양문록>과 <정수정전>을 들 수 있고, 가문소설로는 <유이양문록>이 분명하며, 개화기에 신문에 개작 연재된 작품으로 <여영웅>이 있음이 확인된다. 이들 작품은 다른 갈래의 소설과 부단한 상호 작용을 하면서도 서사구조나 인물형상 및 관계 등에서 <이현경전>과 관련이 밀접하다. 따라서 <이현경전>은 18세기부터 개화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학사는 다른 작품들끼리 영향, 수용, 교섭 등 상호 작용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이현경전>의 소설사적 의미를 세 가지 정도 짚어 보았다.

첫째, <이현경전>은 여성영웅소설의 ‘남장·수학-과거급제-출정입공-지위극대화’라는 입공담 모형을 완성하였으며, 여기에 ‘신분노출-결혼-부부대립-화해’의 신분노출담과 부부대립담 등을 두루 갖춤으로써 후대에 매우 다양하고 독특한 여성영웅소설이라는 하위 유형을 지속적으로

탄생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된다.

둘째, <이현경전>은 여성영웅소설과 가문소설의 교섭 및 경쟁을 살펴볼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 작품에는 복수가문이 존재하고, 곽혼인에서 이루어지는 갈등을 비롯하여 처첩 갈등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이양문록>과 같은 가문소설에서도 발견되는 요소로 여성영웅소설과 가문소설 간의 갈래교섭을 살펴볼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아울러 여성영웅소설이나 가문소설의 주된 향유층이 여성독자라는 점과 이들의 축적된 독서경험의 유사성에서 두 유형간의 교섭이나 경쟁을 찾을 수 있다.

셋째, <이현경전>은 후대에 필사본, 신문 연재본, 활자본 등과 같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본 또는 개작으로 변모 계승되면서 독자 대중에게 유통되었다. 이 과정에서 남녀 독자 모두를 고려하여 내용이 손질된 이본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신문에 연재되면서 새로운 시대 상황을 반영하기도 하였다. 이 점에서 소설의 대중화와 통속화를 살펴볼 수 있는 적합한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李學士傳>, 경북대 중앙도서관 소장.
<이현경전>, 사재동 교수 소장 94장(사재동 A본)
<鄭水晶傳>,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54장본.
<부장양문록>(개인소장본)
<여영웅>, 대한일보, 1906년 4월 5일-8월 29일.
<유이양문록>,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 김용봉, 「<정수정전>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1993, 1-117쪽.
류준경, 「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여성영웅소설」, 『고소설연구』 제1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1, 5-35쪽.
박숙례, 「<유이양문록>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07, 1-132쪽.
박양리, 「초기 여성영웅소설로 본 <이현경전>의 성격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54, 한국문학회, 2010, 79-109쪽.
사진실, 「「정수정전」 이본의 계통과 변모 양상」, 『한국 고전소설과 서사문학(상)』, 집문당, 1998, 549-574쪽.
송성욱, 『한국 대하소설의 미학』, 월인, 2002, 37-64쪽.
이병직, 「<부장양문록>의 작품 세계와 소설사적 위상」, 『한국민족문화』 3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27-56쪽.
이병직, 「<이현경전>의 이본 연구」, 『한국문학논총』 53, 한국문학회, 2009, 159-197쪽.
임치균, 「<유이양문록> 해제」, 『뉴니냥문록』 일,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1-20쪽.
장효현, 「국문장편소설의 형성과 가문소설의 발전」, 『한국가문소설연구논총』Ⅲ, 경인문화사, 1999, 25-39쪽.

- 정병설,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와 <부장양문록>」, 『고전문학연구』 제19집, 한국고전문학회, 2001, 207-234쪽.
- 정선태, 「『독립신문』의 ‘교육입국’론과 ‘국민’ 생산 기획」, 『한국 근대문학의 수렵과 발산』 소명출판, 2008, 34-63쪽.
- 정준식, 「<김희경전>의 창작방법과 창작시기」, 『한국민족문화』3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8, 173-203쪽.
- 정준식, 「<김희경전>과 <육미당기>의 상관성-남장결연담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48집, 한국문화회, 2008, 37-59쪽.
- 정환국, 「애국계몽기 한문소설의 성격 규명을 위한 시론-『대한일보』 연재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제21집, 한국한문학회, 1998, 325-352쪽.
- 조광국, 「<유이양문록>의 작품 세계」, 『고소설연구』 제26집, 한국고소설학회, 2008, 179-206쪽.
- 조상우, 『애국계몽기 한문산문의 연구』 도서출판 다운샘, 2002, 215-260쪽.
- 조용호, 「개화기 국한문소설 <여영웅> 연구」, 『고소설연구』 제16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 317-351쪽.
- 지연숙, 『장편소설과 여와전』, 보고서, 2003, 246-262쪽.
- 차충환, 「『유이양문록』의 구성적 성격 연구」, 『어문연구』 13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107-127쪽.
- 최호석, 「설계전 연구」, 『고소설연구』 제6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281-303쪽.

<Abstract>

The influence of <LeeHyunKyeongJeon> on the future generations and its meaning

Lee, Byong-Jik

This thesis tries to figure out how much <LeeHyunKyeongJeon> has been related to novels of future generations and clarify what this work has meant in the novel history.

The structure of events, character's personality and women's consciousness can be the criteria for judging how much this work has influenced on future generations' novels. In this work, a woman disguised herself as a man and achieved a great accomplishment, but she had some conflict because of marriage. The character's personality was superior to men's in many aspects. And the work had a characteristic that women showed wonderful self esteem.

Judging from this criteria, the works which have been influenced by <LeeHyunKyeongJeon> are as follows. There are <BooJangYangMoonLock> and <JeongSuoJeongJeion> in the field of heroine novels. <YouLeeYangMoonLock> is the part of family novel world. Also 'Heroine' is a serial story publicized in the newspaper. <LeeHyunKyeongJeon> has three meanings in the novel history.

First, <LeeHyunKyeongJeon> established the basic structure of heroine novels. And it played a big role in producing other diverse and unique heroine novels continuously in the future generations.

Second, we can search for the connections between the heroine

novels and family novels through this work. These works had structural similarity. Most of the readers were women. They had common experiences of reading.

Next, <LeeHyunKyeongJeon> spread through the various media such as transcribed text by posterity, publicized text in the newspaper, and printed text. Therefore, We make a conclusion that this work can be an material for scrutinizing publicity and popularity that the novels own.

Key Words : LeeHyunKyeongJeon, heroine novels, family novels, interaction, acceptance and influence, genre connection

- 논문접수 : 2010년 6월 30일
- 심사완료 : 2010년 7월 26일
- 게재확정 : 2010년 7월 31일